

홍명보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다”

H조 3·4위 위치지만 조 2위 자신...사상 첫 원정 8강 목표 꼭 달성



“팬들이 조추첨을 보고 ‘희망’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돌아온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향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홍 감독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브라질에서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추첨 결과만 보면 ‘죽음의 조’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상대할 세 팀이 모두 까다로운 상대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드컵 조추첨 결과 H조에서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와 함께 16강 진출을 다투게 돼 다행히 ‘죽음의 조’를 피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서 경기를 치를 스타디움과 베이스캠프를 돌아본 소감에 대해 “경기장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다”며 “다만 베이스캠프는 본선 경기를 치를 3곳과 가까운 곳에 있어 최장의 장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브라질과 미국에서 국내와 선수 위주로 소집해 전지훈련을 치르는 홍 감독은 팬들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다는 당찬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홍 감독은 “조추첨이 끝나고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조추첨을 통해 희망을 보신 것 같다”며 “희망을 현실로 바꿔야 하는 만큼 하루하루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의 준비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치러온 평가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팀 전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강 진출 전략에 대해선 “솔직히 우리는 H조에서 3, 4위의 위치라고 봐야 한다”며 “결국 2위까지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팀을 이기겠다는 전략보다 우리의 준비 과정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말을 아꼈다.

홍 감독은 또 “첫 경기를 치를 쿠이아바가 베이스캠프보다 기온이 많이 높아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언제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현지 기온에 적응해야 하는지 적당한 타이밍을 잘 따져야 한다”며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인 러시아전에 대한 중요성을 내비쳤다.

한편 홍 감독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브라질 및 미국 전지훈련 계획에 대해 “해외와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와 선수 위주로 훈련해야 한다”며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국내와 선수들의 경

쟁력을 따져보고 주전급 선수의 백업 자원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표팀은 전력의 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본다”며 “월드컵 본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컵 본선 때까지 해외와 선수들의 부상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도 아주 중요하다”며 “내년 1월 전지훈련이 끝나면 K리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터키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이탈리아 유벤투스를 꺾고 16강을 확정지은 후 세레모니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 갈라타사라이는 폭설 탓에 중단됐다 재개된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1부리그 승격에 올인”

광주FC ‘중·장기 비전·발전계획’ 중간 보고회

‘축구 그 이상의 가치와 감동, ALL IN(올인) 광주 FC’ 광주 FC가 1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프레스센터에서 ‘광주 FC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시체육회, 축구협회, 축구연합회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참가한 이번 보고회의 키워드는 ‘올인 광주 FC’. 모든 걸 투자해서 새로운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창단 3년차의 광주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컨설팅을 담당한 웨슬리 퀘스트 김정은 이사가 4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챌린지 리그 팀의 목표는 승격이다. 그 이유로 대부분 수익 증가를 말한다. 또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면서 “한국 프로축구 틀은 좋은 선수로 팀을 구성해야 이길 수 있는 구조인데 예산이 대기업 구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시민 구단에게는 쉽지 않다. 이번엔 강등된 3팀 모두가 시민구단이다. 광주 FC의 예산으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현실을 냉정히 평가했다.

현실을 감안해 광주는 ‘선순환 구조’를 생선 전략으로 개발했다. 지역 선수 육성과 유망주 발굴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 ‘선순환 구조’다.

김 이사는 “유소년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포항은 올 시즌 용병 없이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승을 이뤘다. 저평가된 선수를 얼마나 발굴하느냐도 중요하다. 고양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다. 알미르, 알렉스 등 전지훈련을 통해 현지에서 평가하고 영입하는 등 선수보는 눈이 좋았다. 좋은 팀 구성의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스폰서십과 발전 된 관계 구축도 ‘선순환 구조’의 일환으로 꼽았다. 관중 증가·지역발전형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김 이사는 “관중 수가 많고 지역 발전형 마케팅이 이뤄질 때 스폰서들이 관심을 갖는다. 관중 증가를 위해 축구와 연계된 차별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광주 마케팅 비용은 2억 원으로 광주 시민당 133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수막 등 단순 보여주기 식으로는 관중 증대가 어렵다”며 “야구·영화관람 등이라는 대체재보다 축구가 뛰어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젊은 방안은 유료 관중의 ‘집중화 전략’이다.

주변의 권유로 방문하는 관람객, 가족·여성 등이 집중해야 할 핵심 고객. 특히 가족 중심의 전략을 강조했다.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럽핑존, 고양의 부모와 함께하는 축구장 체험 등을 그 예로 꼽았다.

김 이사는 “축구 자체만으로는 관중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챌린지라는 약점이 있다. 재미없고, 느리다는 선입견이 심하다. 축구장에서의 경험을 줘야 한다”며 프런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스널·도르트문트 극적 16강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바르샤 네이마르 헤트트릭

2013-2014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3개월간 치러진 치열한 조별리그 경기결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팀(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첼시·아스널) ▲독일 분데스리가 4팀(바이에른 뮌헨·도르트문트·레버쿠젠·샬케04)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팀(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을 비롯해 ACF 밀란(이탈리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제니트 상트페테르

부르크(러시아), 갈라타사라이(터키) 등이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12일(한국시간) 열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독일)와 아스널(잉글랜드)이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다.

바르셀로나(스페인)는 네이마르의 ‘원맨쇼’를 앞세워 셀틱(스코틀랜드)을 6-1로 크게 이겼다.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골 침묵을 지키던 네이마르는 대회 마수결이 골을 비롯해 2호, 3호 골을 연달아 폭발,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이미 4차전에서 16강 진출을 확정된 바르셀로나는 승점 13으로 H조 선두를 굳게 지킨 체 조별리그를 마쳤다. 세 팀이 나란히 승점 12를 기록한 F조에서는 도르트문트와 아스널이 16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도르트문트는 이날 마르세유(프랑스)를 2-1로 꺾고 승점 12를 쌓았다. 나폴리(이탈리아)는 아스널(잉글랜드)을 2-0으로 물리치고 승점 12가 됐다. 이에 따라 도르트문트와 나폴리가 경기 전까지 승점 12로 단독 선두이던 아스널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골 득실에서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 도르트문트가 골 득실 5를 기록해 조 1위로 올

라센 가운데 아스널이 골 득실 3으로 2위를 차지했다. 골 득실 1에 그친 나폴리는 간발의 차로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사흐타르(승점8), 벤피카(승점10) 그리고 바젤(승점8)도 높은 승점을 얻고도 탈락했다.

반면 제니트(러시아)는 승점 6점을 얻고도 조편승 운으로 16강에 올랐다.

전날 폭설 때문에 중단됐다 재개된 갈라타사라이(터키)와 유벤투스(이탈리아)의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유벤투스를 1-0으로 꺾었다.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7을 기록, 유벤투스를 3위로 끌어내리고 B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조 추첨식은 16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다. 16개 팀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우승 경쟁에 돌입한다. 결승전은 내년 5월 24일 스페인 리스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겨울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대원빌딩 3층 [신세계여행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남이섬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기차여행 (12월24일)

시간	일정
00:05	광주역출발/가평역 도착
07:00	남이섬/김유정문학촌관광
11:40	춘천소양댌 관광
13:10	춘천먹거리 자유증식
21:53	춘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79,000원 소아 59,000원

동해 일출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 기차여행 (12월31일)

시간	일정
22:00	광주역출발/동해역 도착
06:40	추암 촛대바위 새해 일출
09:00	천곡동굴 관광/죽서루 관광
12:10	목호어시장 자유증식
22:30	동해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99,000원 소아 70,000원

태백산

태백산 눈꽃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 출발/태백역 도착
06:00	태백산 등반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탑승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정동진

정동진 일출 열차 (1월 매주 금요일)

시간	일정
21:45	광주역출발/태백역 도착
06:30	정동진 일출 및 관광
12:00	하이원스키장 곤도라
22:05	고한역 출발/광주역 도착

1인당 개인경비 성인 85,000원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 왕복

시간	일정
03:00	영주체육관 주차장
03:05	신세계 백화점 육교 밑
03:10	문화예술회관 육교 밑
08:00	하이원 스키장 도착
16:30	하이원 스키장 출발
21:30	광주도착

1일 왕복요금 50,000원

리프트카정비(매일)주중60% 주말 50% 할인적용